18세기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의학문화교류

차웅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Korean-Japan Medical Culture Exchange through The Choson Delegation in The 18th Century

Wung Seok Cha*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Kyunghee University

In the 18th century, Joseon and Japan corresponded politically and culturally through the Joseon Missionary. During this time, the people in Japan who received the Joseon Missionary left many records of their visits and among them were numerous accounts related to medicine. In the years 2003 and 2004,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gathered records that were dispersed throughout Japan, and in 2005, it organized the information and put it up on the web along with the original text. This research is an overall report on the documentary records. It analyzes individual documents and looks into what the mainly interested the Joseon and Japanese medical worlds at that time. The documents located up till now are 21 medical dialogue records from the 18th century. Through the process of these medical dialogues, the Joseon medical circle discovered a different side of Japanese medicine, and the Japanese medical world had a chance to directly receive advanced medical skills. Through these medical dialogues, the two countries also exchanged bountiful information about clinical patients. The Japanese scholars showed deep interest in Joseon's ginseng, and asked many questions about practical usages of the contents in the medical documents. It is thought that these medical dialogue records will greatly assist studies on the medical history of this time, because it reveals new research data on Korean medical history and Japanese medical history in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that has never been reported in the academia before.

Key words : Joseon Missionary, Korean Medicine, Traditional Medicine, Ginseng, Medical Charts, Measurement, Research of Traditional Medicine, Missionary, Korean-Japanese Medical Questions and Answers

서 론

조선시대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사절단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는 조선통신사는 일본에서 德川家가 幕府를 수립한 이후 국내의 정치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임진왜란 등으로 무너진 동아시아지역의 선린우호관계를 회복하고자 조선에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절단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모두 12차례 파견되었고, 이 가운데 처음 3회는 일본 측의 요청에 회답하고 왜란 중의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回答兼刷還使'라고 하였고 정식으로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신이 파견된 것은 1636년 丙子使行부터이다.[1] 통신사는 본래 豊臣秀吉의 뒤를 이은 德川家康이 조선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포로의 송환을 들어 조선에 사절단을 요청한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통신사는 문화교류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2] 의학문화교류의 측면에서는 1636년의 사행 때부터 문서를 통해 유능한 의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이래[3] 1682년부터는 통신사일행을 수행하던 '醫員'외에 추가로 '良醫'가 사행에 참가하여 일본의 의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족적을 남겼다.[4][5] 일본인들이 가장 알

* 교신저자 : 차웅석,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chawung@khu.ac.kr, · Tel : 02-961-9446

· 접수 : 2006/09/19 · 수정 : 2006/10/20 · 채택 : 2006/11/20

1)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韓國學論集 v2, p286, 1982.
2)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韓國學論集 v2, pp284-288, 1982.
3) 金靜日. 1636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馬島 認識. 湖明韓國史論創刊號. pp79-80. 1993.
4) 나카오 히로시著 유종현譯, 조선통신사이야기, p208, 한울출판사, 서울, 2005.
5) 鄭章植, 壬戌使行과 朝日關係. 日本學報第47輯. p552. 2001.

고 싶어 했던 것은 조선의 의료기술과 의서, 약물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당시 면담을 신청한 일본인들 중에는 의사가 많았고 매번 사행 때마다 그들의 대담내용을 정리한 이른바 서적이 다수 저술되었다.[6] 역사적으로 18세기 통신사행은 전반적으로 문화적교류가 강하고 현재 발굴된 의학교류관계문헌도 모두 18세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18세기 통신사행중에 기록된 의학문답기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발굴된 조선통신사 의학교류관련 자료는 43종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조선통신사 의학문답기록', 약칭 '통신사의학문답기록', '의학문답기록', '문답기록'이라고 명명한다.] 이 자료는 2003년 韓國韓醫學研究院이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는 조선시대 의학 관련 사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발굴되었고 2004년에 재조사과정에서 일부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 발굴에는 梁永宣, 鄭金生, 眞柳誠 등 저명한 중국, 일본학자들이 참여하였다. 현재 이 자료에 대한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년도 연구보고서인 東亞細亞傳統醫學圈所在韓國本醫學文獻共同調査研究에서 北京中醫藥大學 梁永宣 교수가 일부 자료를 해제형식으로 정리하였고, 2004년도에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문해제를 달아 이미지와 함께 원문 텍스트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였고(http://jisik.kiom.re.kr/), 두 편의 의학문답에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고 의학적 내용을 분석한 졸고 2편이 2004년과 2005년에 발표되었다.[7]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해제위주의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켜, 조일양국 의학자의 교류내용을 상세히 해석하고 고증하여 당시 조선의학계가 일본의학계의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느지, 그리고 조선의학계는 일본의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범위가 18세기로 한정된 이유는 현재 발굴된 43종 중 42종의 문헌이 18세기의 기록이며, 또 통신사를 통한 다른 분야의 문화교류도 가장 활발했던 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637년의 기록인 『朝鮮人筆』은 필사본이며 내용도 극히 소략하여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관계 자료 중에 가장 이른 것은 1637년 간행된 丙子使行때의 1종이며,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1748년 戊辰使行때로 『班荊閒譚』 등 22종이다.

본 론

1. 조선통신사여정과 의학문답기록

1) 의학문답기록 목록

현재 발굴된 조선통신사 의학교류관련 자료는 43종이다. 43종은 일본에서 입수된 조선통신사 의학문답 자료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정리하면서 한 묶음으로 된 자료를 1건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자료의 중복 등의 문제가 있어 본고에서는 문답기록이 행해진 사실을 기준으로 '문답기록번호'를 별도로 표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실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소장자료는 43건이지만 연속된 권수를 동일자료로 처리하고 제목이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동일 문답기록을 근거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18세기 4번의 통신사행 동안 21건의 의학문답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료 정리표

자료번호	년도	사행	분류1*	분류2**	비고	문답기록번호
1	1711년	辛卯使行	兩東唱和後錄	兩東唱和後錄		1
2	1711년	辛卯使行	桑韓醫談卷上	桑韓醫談卷上,下	동일자료처리***	2
3	1711년	辛卯使行	桑韓醫談卷下			
4	1719년	己亥使行	藍島鼓吹	藍島鼓吹		3
5	1719년	己亥使行	韓客贈答	韓客贈答		4
6	1719년	己亥使行	桑韓塤篪集	桑韓唱和塤篪集 卷一,三,四,八,九,十一	『상한훈호집』과 『상한창화훈호집』은 동일판본이며 제목만 달리해서 각각 서로 다른 곳에 소장된 자료임.	5
7	1719년	己亥使行	桑韓塤篪卷一			
8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和塤篪集卷三			
9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和塤篪集卷四			
10	1719년	己亥使行	桑韓塤篪卷四			
11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和塤篪集卷八			
12	1719년	己亥使行	桑韓塤篪卷八			
13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和塤篪集卷九			
14	1719년	己亥使行	桑韓塤篪卷九			
15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和塤篪集卷十一			
16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酬集卷一	桑韓唱酬集 卷一,二,三	동일자료처리	6
17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酬集卷二			
18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酬集卷三			
19	1748년	戊辰使行	桑韓鏘鏗錄卷上殘	桑韓鏘鏗錄 卷上,醫	동일자료처리	7
20	1748년	戊辰使行	桑韓鏘鏗錄醫談			
21	1748년	戊辰使行	班荊閒譚	班荊閒譚		8
22	1748년	戊辰使行	韓客治驗	韓客治驗		9
23	1748년	戊辰使行	仙槎筆譚	仙槎筆譚	『선사필담초록』과 『한객필담』의 내용은 『선사필담』의 내용 중 일부 발췌함.	10
24	1748년	戊辰使行	仙槎筆譚抄錄			
25	1748년	戊辰使行	韓客筆譚 橘元勳			
26	1748년	戊辰使行	朝鮮人筆談上下	朝鮮人筆談上下		11
27	1748년	戊辰使行	朝鮮筆談乾卷	桑韓疑問答 卷上,下	『상한의문답』은 『조선필담』의 내용에 서문과 발문을 붙여 정식으로 간행한 것임.	12
28	1748년	戊辰使行	朝鮮筆談坤卷			
29	1748년	戊辰使行	桑韓醫問答 卷上			
30	1748년	戊辰使行	桑韓醫問答 卷下			
31	1748년	戊辰使行	對麗筆語	對麗筆語		13
32	1748년	戊辰使行	兩東筆語卷一二	兩東筆語 卷一,二,三,四,五,六	동일자료처리	14
33	1748년	戊辰使行	兩東筆語卷三四			
34	1748년	戊辰使行	兩東筆語卷五六			
35	1748년	戊辰使行	韓槎塤篪集乾卷	韓槎塤篪集 卷乾,坤	동일자료처리	15
36	1748년	戊辰使行	韓槎塤篪集坤卷			
37	1748년	戊辰使行	和漢唱和錄	和漢唱和錄		16
38	1764년	甲申使行	和韓醫話	和韓醫話		17
39	1764년	甲申使行	倭韓醫談 卷上卷下	倭韓醫談		18
40	1764년	甲申使行	松庵筆語	松庵筆語		19
41	1764년	甲申使行	兩東鬮語乾卷	兩東鬮語 卷乾,坤	동일자료처리	20
42	1764년	甲申使行	兩東鬮語坤卷			
43	1764년	甲申使行	雞壇嚶鳴	雞壇嚶鳴		21

'분류1'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별개자료로 취급한 것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 ** '분류2'는 본고에서 필자가 동일내용이거나 연속된 권수여서 동일자료로 처리하여 분류한 것. *** '동일자료처리'는 연속된 권수여서 동일자료로 분류함.

6) 梁永宣, 藏于日本的朝日醫家筆談, 동아시아전통의학권소재한국본의학문헌공동조사연구보고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7) 車雄碩 外, 桑韓醫談과 한일의학문화교류, 한국의사학회지17-2, pp73-98, 2004.
車雄碩 外, 1711년 『兩東唱和後錄』과 한일의학문화교류,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2):295-303, 2005.

2) 통신사여정과 의학문답기록 작성시기

일반적으로 통신사는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출발하여 양재, 판교, 용인, 양지, 죽산, 무극, 숭선, 충주, 안보, 문경, 유곡, 용궁, 예천, 풍산, 안동, 일직, 의성, 청로, 의흥, 신영, 영천, 모량, 경주, 구어, 울산, 용당을 거쳐 부산 동래에 도착한다. 거기서 전별연을 갖고 永嘉臺에서 海神에게 제를 올린 다음 영가대를 출발하여 대마도의 佐須奈 또는 鰐浦를 거쳐 嚴原에 도착한다. 여기서 환영연을 갖고 10일정도 체류하면서 여정에 관한 상세한 일정을 협의한다. 嚴原를 출발한 일행은 大坂까지 해로로 이동하고 大坂부터 막부가 있는 江戶까지는 육로로 이동한다. 순탄할 여행인 경우 嚴原에서 大坂까지 약 40일이 소요되며 江戶까지의 거리를 왕복하는데는 총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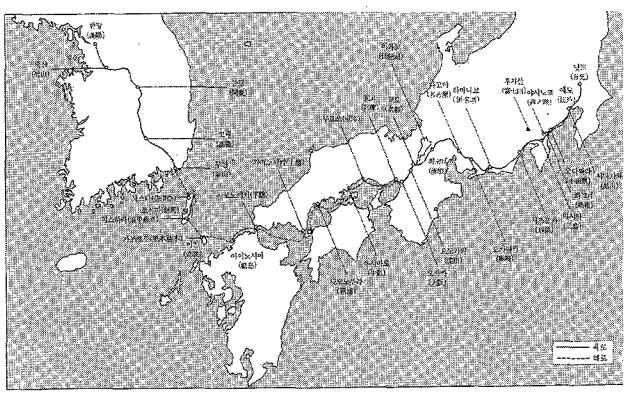

그림 1. 조선통신사 여정 [그림출처 : 鄭章植,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도시대를 가다, 고즈윈, 2005]

(1) 1711년 辛卯使行[9] : 의학문답기록 1,2

5월15일 漢陽 - 5월30일 慶州 - 6월6일 釜山 - 5월19일 對馬島 - 8월9일 壹岐- 9월4일 上關 -9월13일 室津 - 9월14일 兵庫 - 9월15일~25일 大坂[의학문답기록1] - 9월27일 淀浦 - 10월4일 大垣 - 10월8일 濱松 - 10월18일 品川 - 10월19일~11월19일 江戶 - 12월1일 大垣[의학문답기록2] - 12월6일 京都 - 2월1일 藍島 - 2월9일 對馬島 - 2월25일 左水營 南川

(2) 1719년 己亥使行[10] : 의학문답기록 3,4,5,6

4월11일 漢陽 - 5월13일 釜山 - 6월19일 佐須浦 - 6월27일 對馬島 - 7월19일 壹岐 - 8월1일 藍島[의학문답기록 3] - 8월18일 赤間關 - 9월1일 牛窓 - 9월2일 室津 - 9월4일~6일 大坂[의학문답기록5] - 9월12일 大津 - 9월13일 琵琶湖 - 9월16일 名古屋 - 9월17일 岡崎 - 9월24일 小田原 - 9월26일 品川 - 9월27일 江戶 - 9월29일 江戶[의학문답기록4] - 10월15일 東海寺 - 10월17일 小田原 - 10월 22일 濱松 - 10월24일 岡崎 - 10월25일 名古屋 - 10월26일 大垣[의학문답기록5] - 10월27일 佐華(彦根)[의학문답기록5] - 10월29일 大津 - 11월1일 京都 - 11월3일 淀城 - 11월4일 大坂 - 11월6일,8일 大坂[의학문답기록5][의학문답기록6] - 11월16일 室津 - 11월17일 牛窓[의학문답기록6] - 11월18일 韜浦 - 11월28일 上關[의학문답기록5] - 12월8일 赤間關 - 12월12일 藍島 - 12월20일 對馬島 - 1월7일 釜山 - 19일 忠州 - 1월24일 漢陽

(3) 1748년 무진사행[11] : 의학문답기록 7,8,9,10,11,12,13,14,15,16

2월12일 釜山 - 3월17일 壹岐 - 4월2일 藍島 - 4월6일 下關 - 4월8일 上關 - 4월17일 牛窓 - 4월19일 室津 - 4월20일 兵庫 - 4월21일~30일 大坂[의학문답기록7][의학문답기록8][의학문답기록9] - 5월2일 京都 - 5월3일 大津 - 5월4일 琵琶湖 - 5월7일 名古屋 - 5월8일 岡崎 - 5월11일 濱松 - 5월18일 小田原 - 5월21일 品川 - 5월21~6월12일 江戶[의학문답기록10][의학문답기록11][의학문답기록12][의학문답기록13][의학문답기록14][의학문답기록15] - 6월13일 品川 - 6월15일 小田原 - 6월20일 濱松 - 6월22일 岡崎 - 6월23일 名古屋 - 6월24일 大垣 - 6월25일 彦根 -6월27일 大津 - 6월28일~7월8일 大坂[의학문답기록7][의학문답기록16] - 7월9일 牛窓 - 7월13일 上關 - 7월15일 下關 - 7월16일 藍島 -7월17일 壹岐島 - 7월18일 對馬島 - 윤7월12일 釜山

(4) 1764년 甲申使行[12] : 의학문답기록17,18,19,20,21

1763년 8월2일 漢陽 - 8월22일 釜山 - 10월27일 對馬島 - 11월13일 壹岐 - 12월3일 藍島 - 12월27일 下關 - 1764년 1월3일 上關 - 1월13일 牛窓 - 1월14일 室津 - 1월19일 兵庫 - 1월20일~24일 大坂 - 1월28 京都 - 1월29일 大津 - 1월30일 彦根 - 2월3일 名古屋[의학문답기록17] - 2월4일 岡崎 - 2월6일 濱松 - 2월13일 小田原 - 2월15일 品川 - 2월17~3월10일 江戶[의학문답기록18][의학문답기록19][의학문답기록20] - 3월11일 品川 - 3월13일 小田原 - 3월26일 濱松 - 3월28일 岡崎 - 3월29일 名古屋 - 3월30일 大垣 - 4월1일 彦根 - 4월3일 大津 - 4월5일~5월7일 大坂[의학문답기록17][의학문답기록21] - 5월8일 兵庫 - 5월15일 牛窓 - 5월19일 上關 - 5월21일 下關 - 5월24일 藍島 - 5월28일 壹岐島 - 6월13일 對馬島 - 6월22일 釜山 - 7월1일 尙州 - 7월8일 漢陽

2. 한일의학문답을 통한 18세기 한일의학문화특징

1) 의학경험의 교류(醫案問答)

조선통신사 의학문답자료에는 의안에 관한 자료가 다수 실려 있다. 醫案은 의사가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과정의 생각들을 글로 적고 임상에서의 辨證施治 과정을 기록한 자료이며, 한의학적 이론에서 임상실제에 이르기까지의 理法方藥을 구체적으로 다룬 歷代醫家들의 소중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醫案을 통하여 고대 의학자들의 임상 경험뿐만 아니라 그의 학술적 성향을 엿볼 수 있으므로 후학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선인들의 학술적 精髓를 전수 받아 임상에 활용하는 좋은 사료적 가치가 있다. 특히 醫案에 기록된 독특한 임상적 견해와 경험은 기존의 의학전문서적에서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창의성이 뛰어난 醫案은 한의학고전연구에서 현재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다. 醫案은 한의학의 모든 지식을 총

8) 김상보, 장철수. 朝鮮通信使를 포함한 韓日관계에서의 飮食文化 교류.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5권 5호 1998. pp434-435에 나온 전문을 요약함. 재인용은 생략함.

9) 일정은 東僊日記(民族文化推進會, 海行摠裁X 東僊日記, 探究堂, 서울, 1977)을 참고.

10) 일정은 海遊錄(民族文化推進會, 海行摠裁 I II 海遊錄, 探究堂, 서울, 1974)을 참고.

11) 일정은 奉使日本時聞見錄(民族文化推進會, 海行摠裁X 奉使日本時聞見錄, 探究堂, 서울, 1977)을 참고.

12) 일정은 海僊日記(民族文化推進會, 海行摠裁 海遊錄VII 海僊日記, 探究堂, 서울, 1975)을 참고.

망라하고 있는 資料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는 先秦 및 前後 漢나라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여 淸나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醫案은 약 2만여 例로 집계되고 있다. 名醫가 기록한 醫案만도 부지기수이며, 청나라 中葉에서 淸末까지 간행된 醫案 저서가 약 150여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名醫類案』과 『續名醫類案』은 淸나라 이전 名醫들의 뛰어난 醫案 8,000例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한의학에서의 의안기록은 한국한의학의 우수성에 비해 기록으로 남겨진 의안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나마 필자가 본 통신사 의학문답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안기록 일부를 발굴하게 되어 그 내용을 정리하고 몇가지 분석기록을 정리하였다. 조선통신사 의학문답에 나와있는 의안기록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조선인이 일본인을 치료한 의학기록과 일본인이 조선인을 치료한 의안기록이다. 전자는 문답기록 여러곳에 흩어져 있으며, 후자는 1748년 『韓客治驗』에 집중적으로 실려있다. 양국의 인사들이 문답을 나누면서 서로 불편한 증세를 묻고 답해주는 경우도 있다. 1748년 『桑韓鏘鏗錄』의 朝鮮書記 李命啓의 학질증상이나 『朝鮮筆談』의 良醫 趙崇壽의 의안기록은 그와 같은 예이다. 의학문답에 나온 광의의 의미에서 의안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질환에 대한 치법에 대한 문답기록은 제외하였고, 특정환자의 정보가 담겨있는 경우만 산정하였다. 의학문답에 나와있는 의안기록은 총 28건이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통신사 의학문답표기록 중 '醫案'기록수

문답번호	년도	사행	자료명	의안문답
1	1711년	辛卯使行	兩東唱和後錄	
2	1711년	辛卯使行	桑韓醫談	일본인 남자 30세 耳聾 1건
3	1719년	己亥使行	藍島鼓吹	
4	1719년	己亥使行	韓客贈答	
5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和塤篪集	일본인 남자 50세 痔痛 외 4건
6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酬集	일본인 남자 5세 脚氣 1건
7	1748년	戊辰使行	桑韓鏘鏗錄	조선서기 李命啓 瘧疾 1건
8	1748년	戊辰使行	班荊閒譚	
9	1748년	戊辰使行	韓客治驗	조선인 남자 38세 金福才 火傷 외 14건
10	1748년	戊辰使行	仙槎筆譚	
11	1748년	戊辰使行	朝鮮人筆談	조선인 남자 28세 肥滿 1건
12	1748년	戊辰使行	朝鮮筆談	조선인 良醫 趙崇壽 脇痛 1건
13	1748년	戊辰使行	對麗筆語	
14	1748년	戊辰使行	兩東筆語	일본인 남자 25세 虛勞 외 2건
15	1748년	戊辰使行	韓槎塤篪集	일본인 남자 19세 舍田憙 肝病 1건
16	1748년	戊辰使行	和漢唱和錄	
17	1764년	甲申使行	和韓醫話	일본인 癬瘡 외 2건
18	1764년	甲申使行	倭韓醫談	
19	1764년	甲申使行	松庵筆語	
20	1764년	甲申使行	兩東觀語	
21	1764년	甲申使行	雞壇嚶鳴	
의안 총계				총 28건

의안은 환자의 치료경험의 기록이며, 임상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의사들의 문답에는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 주로 일본의 의학자들이 평소 해결하지 못했던 임상례에 대해 묻고 조선의학자들이 답을 주는 형식이다. 1748년의 『韓客治驗』에서 일본의사가 조선인 부상자들을 치료한 경험, 여러 의학문답에서 조선의 사신들이 일본의학자들에게 처방을 묻는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록 의료수준에서는 조선의학이 일본의학보다 한 수 위였다지만, 양국의 의안에 대한 토의가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조선의사들의 의안에 대한 문답내용은 거의가 『東醫寶鑑』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학문답속의 의안기록은 당시 조선의학이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의학적체계가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실증자료인 셈이다.

2) 인삼의 전래와 연구

일본인들이 조선의사들에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것 중의 하나는 人蔘에 관한 내용이다. 『韓客贈答』과 같이 단순한 이야깃거리로 인삼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의 의사들은 조선 사절단에게 인삼에 관한 긴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때로 사절단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삼은 이미 5세기말 陶弘景의 『本草經集注』에서 "인삼은 백제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모양이 가늘지만 단단하고 희다. 기미는 상당삼보다 옅다. 그 다음으로는 고구려의 것을 사용하는데 고구려는 곧 요동이다. 모양은 크지만 속이 비고 약하여 백제의 것만은 못하다. 백제는 현재 고구려의 신하국이어서 고구려에서 보내오는 인삼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다만 사용할 곳에 맞게 취하여 사용할 뿐이다. 실제로 사용함에 모두 상당삼만은 못하다 … 고려인인 지은 인삼찬에는 '세 개의 줄기와 다섯 개의 잎사귀가 있네. 해를 등지고 그늘을 향해 있나니. 나를 찾아서 오려면 가수나무에서 찾아보아라'라고 되어 있다."[13]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을 필두로 인삼에 대해 기록은 거의 모든 본초서에서 고려인삼과 백제인삼을 언급하였다. 16세기 중국의 본초학을 집대성한 『本草綱目』에서도 조선의 인삼에 대해 "지금 쓰는 것은 요동에서 나는 것인데, 고려, 백제, 신라3국을 말하며 지금은 조선에 속해있다"[14]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5세기이래로 중국의 거의 모든 본초서에서 조선인삼의 우수성을 역설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의학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일본의학계로서는 조선의 인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왜관무역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조선의 인삼이 일본에 전해짐으로서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일본국왕 및 일본 주요 인사들에게 보내는 예단품목에도 빠지지 않았으며[15][16] 일본인이 통해 요청한 것들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물품이었다.[17]

일본의사들이 조선통신사 의관들을 통해 얻고자 했던 인삼에 관한 정보는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인삼의 대용품에 관한 사항들이고 둘째는 인삼의 생장과 형상 및 감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인삼의 재배이다. 이러한 질문들의 요점은 일본에서 나는 인삼이 과연 진품에 버금가는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조선의 고급인삼을 일본에서도 쉽고 저렴하게 얻고자하는 즉 인삼을 국산화하려는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외의 고가약재를 자국산으로 대

13) 陶弘景, 『本草經集注』(人民衛生出版社發行 尙志鈞等輯校本 pp207-208, 1994.)
14) 李時珍, 「本草綱目」「草部卷十二」(中國中醫藥出版社編 明淸名醫全書大成本 p424, 2003)
15) 朝鮮王朝實錄 영조24년 3월2일 기사
16) 朝鮮王朝實錄 영조37년 5월7일 기사
17) 서울대학교규장각, 『倭人求請謄錄』「倭人求請謄錄解題」

체하려는 노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고려말 조선초에 있었던 현상으로[18] 당시 선진의료기술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이다. 일본의사가 조선의 인삼에 얼마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인삼에 관한 기사가 양적으로 풍부하다는 것 뿐 아니라, 조선의사들에게 집요하리만치 인삼에 관해 주변자료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려는 절실한 태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기록에서 보이는 첫 인삼에 관한 내용은 인삼의 대용품에 관한 것이다. 1711년 12월1일 大垣에서 이루어진 필담에서 조선의 양의 奇斗文에게 일본의사 北尾春圃는 沙蔘의 실물을 들고 와서 진위의 감별을 부탁한다. 질문의 시작은 사삼의 감별이지만, 질문의 궁극적인 요지는 사삼이 인삼의 대용품이 될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역대의가인 張元素와 『本草綱目』, 『證治準繩』 내용에 인삼을 사삼으로 대용할 수 있다는 전거를 들면서 만약 사삼에 補氣와 補陽의 작용이 없다면 사삼에 白朮과 附子를 병용해서 인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넨다.(『桑韓醫談』 1711년)

그러나 이에 대한 양의 奇斗文의 대답은 회의적이다. 그는 사삼은 淸心益肺의 효능이 있어서 陰虛火動으로 인한 咳嗽나 痰火가 성할 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삼을 대신할 수는 없고 張元素가 인삼대용으로 사삼을 썼다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이며 사삼에 黃芪, 附子같은 보양약을 넣어서 인삼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桑韓醫談』 1711년)

인삼의 대용품에 대한 관심은 일본산 인삼을 가공해서 조선인삼을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는데 1748년 일본 河春恒과 조선 趙崇壽의 문답에서 河春恒은 일본에서 나는 인삼이 조선의 인삼과 형태는 거의 흡사한데 맛에서 약간 쓴맛이 많아 감초물이나 꿀물에 담가서 단맛이 나게 해서 쓰고 있다고 전하고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는듯 한데 趙崇壽의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묻는다.(『桑韓疑問答』 1748년)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약재가공법이지만, 이렇게 인삼과 형태만 유사한 것에 단물을 들여 인삼의 대용품으로 쓰려고 했던 상황은 고대 본초학의 氣味論에 근거해본다면 당시 일본의사들이 궁여지책으로나마 사용했을법한 방법임을 이해할 수 있다. 13세기부터 당시 경험위주의 의학관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이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서 본초의 효능에 대한 이치적인 이해가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그때 부각된 것이 氣味論이다. 즉 약재의 寒熱溫凉의 四氣와 酸苦甘辛鹹의 五味의 정도에 따라서 약효의 성격과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인데,[19] 이러한 약물의 맛과 기가 약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생긴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河春恒의 질문에 대해 趙崇壽는 단호하게 부정하였다.

두 번째로 인삼의 생장과 형태 그리고 감별에 관한 내용인데 인삼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다. 1711년 조선의 奇斗文과 문답하였던 北尾春圃는 자신의 일가와 지인 십수명을 조직하고 조선통신사가 지나며 묵는 숙소 여러곳에 배치하여 조직적인 문답을 이끌어낸다. 그 결과로 『桑韓唱和塤篪集』 총11권을 짓게 되는데 그 일원이었던 飯田玄機가 인삼에 관해 당시 조선사절단의 양의 權道와 문답하였다. 飯田玄機는 인삼의 형태, 산지 등에 대해 미리 조사하였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權道에게 보여주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조선인삼을 제대로 볼 기회가 없는 일본의사들이 인삼에 대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본초관련 문헌이었다. 그래서 비단 飯田玄機뿐 아니라 인삼에 대해 질문을 하는 거의 모든 일본의사들의 질문은 도홍경의 『本草經集注』, 『本草綱目』 등의 당대 유행하는 본초서 중의 인삼조문의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실제 조선의 현황과 비교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한다. 간혹 책속의 내용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인삼의 효과보다는 인삼의 형태와 산지에 관해서이다. 즉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인삼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보다는 조선에서 들여오는 인삼과 같은 모양 및 효능을 가진 인삼을 일본에서 찾는데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1748년 기록인 『班荊閒譚』에서는 인삼의 형태와 산지, 채취등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하고 집요하게 묻고 있다. 심지어 도홍경의 『本草經集注』에 인삼이 '가수나무 아래에서 자란다'[20]는 것에 근거하여 가수나무의 형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문하고 있을 정도로 인삼을 자국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일본인들의 집요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인들의 형태와 산지에 관한 질문은 일본인삼의 가치판별과도 연관되는데 그래서 1748년에는 일본인이 직접 일본인삼을 들고 와서 감별을 요청하는 기록이 있다. 그해 4월28일 조선통신사가 大坂에 머물고 있을때 일본의사 百田安宅은 일본에서 나는 인삼실물을 직접 들고와서 양의 趙崇壽에게 감별을 요청한다.(『桑韓鏘鏗錄』 1748년) 당시 趙崇壽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뒤에 趙崇壽는 다른 사람들과의 문답에서 자기가 일본에서 본 인삼은 가짜라고 여러 번 밝히고 있다. (『班荊閒譚』 1719년, 『對麗筆語』 1719년) 일본인들이 일본인삼 실물을 들고 와서 감별을 요청한 경우는 적지 않았고 그때마다 조선의 의사들은 진품이 아니며 조선인삼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다. 일본인들의 인삼에 관한 관심을 의식한듯 1764년에 양의 李佐國은 조선인삼을 직접 보여주면 맛보게 하였다. (『和韓醫話』 1764년)

형태와 산지에 대한 일본의사 直海龍의 자세한 질문에 대해 조선의 양의 趙崇壽는 조목조목 대답을 하지 않고 약효가 뿌리에 몰려있는 깊은 가을에 채취하는 것, 금속을 꺼려 대나무 칼로 캔다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바람을 쏘이지 말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인삼잎을 쓰는 것은 인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쓴다는 정도로 간단하게 답한다.(『班荊閒譚』 1748년)

질문의 내용은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때로는 집요하기까지 하지만, 그에 대한 趙崇壽의 대답은 질문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다. 당시 인삼을 대하는 양국의학자들의 견해차이가 분명하게

18) 車雄碩, 中國의 醫學入門이 韓國의 東醫寶鑑에 미친 影響, 韓國醫史學會誌13(1):114-115, 2000.

19) 孟雄在 等編, 강좌중국의학사, p197, 대성의학사, 서울, 2006.

20) 陶弘景, 『本草經集注』(人民衛生出版社發行 尙志鈞等輯校本 pp207-208, 1994.)

드러나는 대목인데, 일본의사들은 인삼의 국산화에 더 관심이 많았고 조선의서들이 조선의사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 내용은 의학의 원리, 질병의 치료에 관해서이며, 약초의 재배와 채취등에 대해서는 전연 전문가적인 식견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간혹 조선의사들은 약물의 기원, 재배, 산지 등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신경질적으로까지 반응하기도 한다. 趙崇壽는 1748년 江戶에서 있었던 문답에서 본초학자 野呂實夫가 집요하게 약초에 대해 묻자, 자신의 의학을 논하는 사람이지 약재를 채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를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朝鮮人筆談』 1748년) 이것은 비단 趙崇壽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764년에 파견된 양의 李佐國도 조선의 의사들은 채약을 하지 않고 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며 약을 캐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자신들은 상인들이 채약인들과 거래하여 공급하는 것을 받아쓰는 정도라며 趙崇壽와 비슷한 형태의 술회를 하고 있다.(『倭韓醫談』 1764년)

다음으로 인삼에 관한 기록중에 1748년과 1764년에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가 바로 인삼의 재배에 관한 내용이다. 인삼의 재배에 관해서는 중국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대체로 명대이전까지의 인삼재배는 야생산삼을 옮겨다 심은 형태의 재배이며 그것도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문헌적인 분명한 근거로는 『本草綱目』의 "씨앗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에 심는데 그 방법은 채소심는 것과 같다(亦可收子 于十月下種 如種菜法)"를 들고 있다.[21][22] 그러나 『本草綱目』의 내용이 워낙 소략하여, 그 내용만으로는 인삼재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중국에서도 인삼재배에 관한 명확한 문헌기록은 1778년에 唐秉鈞이 지은 『人蔘考』에서부터이다.[23][24] 조선에서의 기록은 의학문헌에서는 보이지 않고, 조선왕조실록 정조14년(1790) 4월30일자 기사에서 "신이 지금 약원(藥院)에서 일을 보면서 들으니, 나삼(羅蔘)이 극히 귀해지는 폐단 역시 영남 감영의 관속과 독점 상인배가 이권을 독점하고 조종하기 때문이며, 5,6배의 높은 값을 주고 사서 진상하는 것도 모두 가삼(家蔘)이기 때문에 계속 퇴짜를 맞는다고 하니, 일이 너무도 한심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이미 당시 인삼의 재배가 성행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의 인삼재배에 관해서 안진균은 그의 논문[25]에서 16세기에서 17세기동안 인삼의 수요량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야생삼의 채취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야생삼을 채취하여 공물로 보내야하는 지역주민들이 공납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야생인삼의 종자를 산중에 인공적으로 심어두는 형태에서 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인삼재배는 영조(1724~1776)말년에 경상도산간에서 산촌민들이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도내로 확산되고, 다시 인접한 전라도로 전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1800년대 초반에는 개경에 인삼재배가 성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통신사의학문답에서의 인삼재배에 관해서는 1719년 飯田玄機와 權道의 문답 가운데 중국의 본초책에 인삼재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조선에도 있는지 가볍게 질문한 내용이 있지만 『本草綱目』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내용은 없다. 이후 1748년과 1764년에 인삼재배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이 당시의 문헌기록은 인삼재배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들은 인삼재배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캐묻고 있고 조선인들은 인삼을 재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산삼에 관한 내용만 고집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인삼재배에 관한 기록 중에 주목할 것으로 『朝鮮人蔘耕作記』가 있다. 일본인 坂上登(1718~1776)이 1747년에 저술한 것으로서 초간본은 소실되어 없어지고 현존하는 것은 1764년에 중간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가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마침내 1728년 조선의 인삼종자를 얻어다가 日光근처에서 재배에 성공하였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자얻는법, 종자씻는법, 파종법, 햇볕가리개 설치하는 법 등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세세한 노하우를 그림과 더불어 기록하였다.[26] 시험적으로나마 1747년 전에 이미 인삼재배에 성공한 것이다. 1748년 1764년 조선통신사와 문답한 일부 일본인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다만 일본의사들은 조선이 인삼종주국으로서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비법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 의사들의 대답은 인삼은 영물이기 때문에 재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인삼재배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조선의사들은 인삼재배에 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삼에 관한 양국 학자들의 대화의 내용은 조선인삼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일본에서도 조선인삼에 버금가는 인삼을 공급하기 위한 일본인들의 집요한 관심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양국의 인사들은 인삼의 가격, 인삼잎을 약재로 사용하는 노하우, 조선인삼의 종류, 일본으로 수입되는 인삼의 진위여부, 광동인삼, 중국산 인삼, 인삼을 달이는 법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3) 本草와 藥材에 대한 관심

통신사의학문답에는 일본학자들의 본초학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반영해주는 자료들이 있다. 약재의 효능보다 약재의 기원, 감별, 생태, 이름 등 名物學적 관심이 그것인데, 富士川游도 일본의 본초학은 약물학의 범위를 넘어 약물을 포함한 동식물의 명칭과 유래, 산지, 토산품과 수입품의 구별 등으로 관심범위를 확대하여 박물학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고 하였다.[27] 1748년 6월 11일 江戶에서 조선통신사 일행을 배알한 丹羽貞机는 자신을 명물학자라고 소개하고 『東醫寶鑑』 및 『東國輿地勝覽』 같은 조선의 책에서 본 것이라며 동물류, 식물류, 광물류 63종의 목록[28]을 적어 와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조선통신사 의학문

21) 林仲凡, 有關人蔘的歷史考證, 中國農事, pp78-84, 1985
22) 李向高, 我國人蔘栽培, 加工的歷史概況, 中藥材科技, pp39-40, 1984
23) 林仲凡, 有關人蔘的歷史考證, 中國農事, pp78-84, 1985
24) 李向高, 我國人蔘栽培, 加工的歷史概況, 中藥材科技, pp39-40, 1984
25) 安珍均, 인삼재배지역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지역환경, pp64-66, 1982
26) 이성우, 韓國食經大典, pp605-607, 향문사, 서울, 1998.
27) 富士川游著 朴炅等譯, 日本醫學史, p375, 法仁文化社, 서울, 2006.
28) 朝鮮國產物目次 : 蘇魚 兵魚 民魚 秀魚 眞魚 好獨魚 錢魚 銀口魚 廣魚 魷魚 葦魚 綿魚 訥魚 錦鱗魚 文魚 細尾魚 黃小魚 玉頭魚 行魚 鰥魚 釘魚 寶開魚 占察魚 麻魚 赤魚 雙足魚 瓜魚 無泰魚 臨淵水魚 松魚 大口魚 洪魚 古刀魚 回細蛤 海蜒 土三靑 深中靑 土花 石花 絡締 獅子足艾 辛甘菜 笠草 弓幹木 鴨脚樹 白檀香 紫檀香 海東皮 烏竹 烏水精 靑爛石 玉燈

답기록에는 『兩東筆語』를 쓴 丹羽貞机와 같이 전문 본초학자 내지는 명물학자들이 남긴 기록이 몇 편있다. 『兩東筆語』 외에도 『班荊閒譚』과 『朝鮮人筆談』이 있다. 이같은 전문본초학들 외에도 일본의학자들은 전반적으로 본초의 박물학적 지식에 관심이 많았다. 표는 자료에 대화주제로 등장하는 본초를 정리한 것이다. 1764년 『倭韓醫談』을 지은 坂上田村은 '魚類圖鑑'을 들고 와서 설명해달라고까지 부탁한다.

표 3. 의학문답기록중의 본초와 약재

문답번호	년도	사행	자료명	약재관련 질문내용
1	1711년	辛卯使行	兩東唱和後錄	
2	1711년	辛卯使行	桑韓醫談	蔓蓼 沙蓼
3	1719년	己亥使行	藍島鼓吹	
4	1719년	己亥使行	韓客贈答	
5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和塤篪集	櫻花 紅葉樹 薯草
6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酬集	
7	1748년	戊辰使行	桑韓鏘鏗錄	白朮 百部根
8	1748년	戊辰使行	班荊閒譚	椵樹 握雪礬石 白丹砂 蕙草 方莖麻葉 長松 山精 楓樹 海棠 山茶 紫薇 辛夷 五味子 蔓牧丹 木芍藥 珊瑚桐 蓋蕖 小判魚
9	1748년	戊辰使行	韓客治驗	
10	1748년	戊辰使行	仙槎筆譚	烟草 黃連 威靈仙 大口魚 松魚
11	1748년	戊辰使行	朝鮮人筆談	赤芽, 栢枝葉, 梓, 楸, 假梧桐, 貝母, 黃芩, 日附子, 山椒, 秦椒, 檜栢, 海帶, 昆布, 白朮, 白芍藥, 柴胡, 枇杷, 白殭蠶, 羌活, 檳榔, 大腹子, 當歸, 艾, 雀舌草
12	1748년	戊辰使行	朝鮮筆談	
13	1748년	戊辰使行	對麗筆語	款冬花, 桂, 柴胡, 白朮
14	1748년	戊辰使行	兩東筆語	蘇魚 兵魚 民魚 秀魚 眞魚 好獨魚 錢魚 銀口魚 廣魚 魴魚 靑魚 綿魚 訥魚 錦鱗魚 文魚 細尾魚 黃小魚 玉頭魚 行魚 鰳魚 釘魚 寶開魚 占察魚 麻魚 赤魚 雙足魚 瓜魚 無泰魚 臨淵水魚 松魚 大口魚 洪魚 古刀魚 回細蛤 海膜 土三靑 深中靑 土花 石花 絡綿 獅子足艾 辛甘菜 笠草 弓幹木 鴨脚樹 白檀香 紫檀香 海東皮 烏竹 烏水精 靑爛石 玉燈石 水爛石 黃角 靑鼠 土豹 細毛 安息香 靑角 土石輪花 古里麻 塔士麻 /木槲 柾 縮砂木 小人參 三枝五葉草 白朮 蒼朮 海菜 海苔 石花菜 赤小豆 柚 黃連 熊爪 鍾乳 柴胡 黃芩 秦艽 五味子 茴香 酥 黃芪 甘草 熟地黃 乾地黃 水晶
15	1748년	戊辰使行	韓槎塤篪集	
16	1748년	戊辰使行	和漢唱和錄	薑屑, 黃楊腦, 黃芩, 山茱萸
17	1764년	甲申使行	和韓醫話	天仙子, 一肉(天犀肉), 溪蟹, 虎肉,
18	1764년	甲申使行	倭韓醫談	蠶水 '魚類圖鑑' 癩蝦蟆草 海殼草 龍骨 寅鷄, 鹿目 一葉金 製火浣布 厚朴
19	1764년	甲申使行	松庵筆語	
20	1764년	甲申使行	兩東鬮語	
21	1764년	甲申使行	雞壇嚶鳴	

이러한 일본의학자들의 본초학에 관한 질문의 요지는 거의가 산지, 감별, 형태, 비교 등에 관한 내용이어서, 약재의 효능과 치료효과에 박식한 조선의 의사들로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간혹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질문과 대답의 괴리현상은 조선통신사 문답기록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만큼 양국의 본초를 대하는 관심기준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사들이 약재의 형상, 산지, 감별등에 관심이 많았다면 조선의 의사들은 약재의 효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3. 침구학의 교류

18세기 조선의 침구의학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1725년 일본에서 조선 침구전문 의서인 『鍼灸經驗方』을 간행한 山川淳菴은, 그의 서문에서 "유독 조선을 鍼刺에 있어서 최고라고 부른다. 평소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다는 말은 정말 꾸며낸 말이 아니었다."라는 말로 당시 조선의 침술 수준을 평가하였다.[29] 조선통신사를 통해 이루어진 18세기 의학문답기록은 바로 조선의 침구의학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기록된 것이다. 때문에 문답 가운데에는 침구학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게 보인다. 문답 안에서 일본 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침구법이 『內經』의 전통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침구 선진국인 조선의 그것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자 노력한다. 또 새로운 도구와 기법, 침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5. 『兩東鬮語』에 나타난 일본의 상용 침들

침의 종류	『靈樞』 九鍼과 비교	쓰임
毫鍼	毫鍼	일반 질환에 두루 쓰임
三稜鍼	鋒鍼	癰疽에 전문적으로 쓰임
平鍼	鈹鍼	癰疽, 瘡瘍이 곪으려고 할 때 꼭대기를 째서 穢毒을 제거

표 6. 조선통신사 의학문답에 나타난 조선의 상용침

문헌별 침의 종류			형태	쓰임
桑韓醫問答	兩東唱和後錄	兩東鬮語		
太腫鍼	太腫鍼	'大者'	너비 5푼, 길이 5촌 삼릉침과 비슷	濕熱이 응결되어 종기가 생겨 통증이 심할 때
中腫鍼	中腫鍼		대종침의 작은 형태	
	小腫鍼			
三稜鍼	細三稜針	三稜鍼	크기별로 네 가지	경락을 취할 때
大鋼鍼				복부 積痛
經絡鋼鍼			짧고 작음	
小史鋼鍼			가늘고 작으면서 김	
咽喉鍼			붓머리 같음	
	毫微針			
		圓鍼		

1) 통신사문답기록에 나타난 일본 침구의학의 특징

첫째, 당시 일본에서는 침을 쓰는 의사와 약을 쓰는 의사가 분화되어 있었다. 침과 약은 한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치료법으로 오랜 기간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침이 가지는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침구학은 일찍이 전문화 되었다. 18세기 동아시아에는 이미 침술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내의원에 鍼灸醫를 따로 두었고, 중국에서도 鍼灸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의가들이 침구전문서를 간행하고 임상에서 활동하였다. 18세기 의학문답에서는 일본에서도 침을 전문적으로 사용한 의사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이 매우 명확하였음을 보여준다. 『桑韓疑問答』에서 河春恒은 일본에는 湯液家외에 침의(針醫)가 있으며, 이들이 毫鍼을 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조선인필담에서 일본 의사 野呂實夫는 "저는 침술에 대해

石 水爛石 黃角 靑鼠 土豹 細毛 安息香 靑角 土石輪花 古里麻 塔士麻

29) 朴文鉉 金南一,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대학교박사(2002), p9쪽에서 재인용

잘 모릅니다. 침술에 대해서는 전문과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들의 말은 모두 당시 일본에서 '湯液家(약을 주로 사용하는 의사)'와 '鍼醫(침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의 구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일본의 鍼醫들이 시술 방식에 따라 여러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兩東鬪語』에는 일본에는 毫鍼을 사용하는 전통이 오래 되었으며, 毫鍼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다양한 침법이 만들어져 각자 일가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당시 다양한 침술이 존재하여 성행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본의 침구유파는 침구 이론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나 침술 운용의 차이 때문에 생겨났다. 지금도 일본에는 여러 침구유파들이 존재하는데, 현대 학자들에 따르면 吉田流, 匹地流, 杉山眞傳流, 雲海士流, 石坂流, 扁鵲流, 意三流, 朝山流 등의 유파들이 존재한다고 한다.[30] 이들 가운데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金德邦(혹은 金得拜)에 의해 형성된 학파도 있다. 『兩東唱和後錄』에서 村上溪南은 자신의 집안이 대대 鍼灸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그 유래는 자신의 선조가 조선의 金得拜로부터 전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金德邦[31]는 金得拜, 金德拜 등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시대적으로 임진왜란 중에 일본에 포로로 잡힌 조선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32] 일본의 침구의서인 『鍼灸極秘傳』은 일본의 木村元貞이 1780년에 간행한 침구전문 의서이다. 이 책의 원저자는 일본인 永田德本이라는 사람으로, 慶長년간(1596~1615)에 조선인 의관인 김덕방(金德邦)에게 전수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33] 村上溪南의 조상은 永田德本과 함께 金德邦에게 침술을 배운 사람이다. 애석하게도 村上溪南이 그들 침술의 특징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金德邦이 전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조선의 침술이 일본에 건너가 계승,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둘째, 뜸을 이용한 질병예방법이 민간에서 관습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桑韓疑問答』에서 河春恒는 "우리나라[일본]의 어른, 소아, 노인은 모두 평생에 병이 없는 때라도 春分과 秋節 등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때에 반드시 膏肓, 膈兪, 脾兪, 膵兪에 뜸을 뜹니다. … 비록 병이 없더라도 미리 이렇게 하여 (정기를) 培養 합니다. 오직 우리나라[일본] 풍속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어떠한 책에 근거한 것인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여 灸法을 이용한 전통적인 질병예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朝鮮의 趙崇壽의 "내가 노상에 裸體로 있는 자의 한 쪽 背部에 뜸을 뜬 상처를 보고는 자못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는 말은 河春恒의 설명처럼 이 같은 뜸법이 민간에서 매우 널리 시행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아사망률이 높았던 전근대 시대 일본에서는 질병예방의 의미로 소아의 등에 뜸을 떠서 이들의 무병장수를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뜸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일본에만 있었던 방법은 아니다. 기존 방서들에서는 주로 臍中에 뜸을 떠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조선에서도 臍中에 뜸을 뜨는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의서인 『東醫寶鑑』(1613)에는 제중에 뜸을 뜨는 다양한 방법 및 長生延壽丹, 小接命熏臍秘方, 接命丹, 灸臍得延年 등 臍中을 단련시키는 치료법을 싣고 있어, 제중에 뜸을 뜨는 방법으로 '治未病(아직 생겨나지 않은 병을 치료)'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34] 뜸을 통한 治未病의 인식은 같았지만, 시술 방법에 있어서 背兪穴에 뜸을 뜨는 방법은 일본에서만 유행되었던 방법으로 보인다. 趙崇壽도 臍中에 뜸을 뜨는 練臍法에 대해서는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背兪穴에 뜸을 뜨는 일본의 전통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질병이 없는데 까닭 없이 뜸을 뜨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대답한다. 뜸을 이용한 양생의 방법에서 인식차이를 드러낸 대목이다. 배부수혈에 뜸을 뜨는 방법은 養生法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의 치료에서도 볼 수 있다. 癰疽 치료법인 八穴灸法은 『重刊神應經』과 『鍼灸經驗方』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서 일본의 和介氏와 丹波氏로부터 전해진 수법이다. 또 水疝倭人灸法 역시 水疝을 치료하는 수법으로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본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수법은 모두 동신촌법을 활용하여 등 뒤에 혈위를 잡고 등에 뜸을 떠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35] 이렇게 배부수혈에 뜸을 뜨는 것은 일본 침구술의 뿌리깊은 전통으로 생각된다.

2) 당시 조선 침구의학의 특징

의학문답을 통해 당시 조선침구의학의 특징도 되집어 볼 수 있다.

첫째, 당시 조선에서 사용된 침은 그 종류가 다양하였으며, 일본의 毫鍼에 비해 다소 두껍고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답에서 조선 의관 金德倫의 말을 근거로 본다면 '其形細小而長'이라고 했던 小史鋼鍼도 일본의 毫鍼에 비하면 두꺼웠던 것으로 보이며(여기서 鋼鍼은 휘어지지 않는 침으로 생각되며, 毫微針은 가늘어 휘어질 수 있는 침으로 보인다), '毫微'으로 명칭했던 毫微針 정도가 일본의 毫鍼과 유사한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답속의 말을 근거로한 단순한 추측이지만, 조선의 침 형태에 대해 남아있는 사료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같은 대략의 추측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여러 문답

30) 張野仁, 「近代日本鍼灸流派の系統圖」について, 經絡治療學會149號, p31, 2002

31) 안상우는 "그런데 현재 일본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중국 명대의 의가인 雲海士로부터 전수받은 조선인 김득배를 거쳐 근세일본의 침구유파의 의 하나로 雲海士類를 상정하여 계보를 작성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雲海士가 누구냐가 되겠지만 애써 조선의 침구술을 빗겨가는 것만 같아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라고 언급하였다. 안상우, 〔고의서산책255〕 兩東唱和後錄① (민족의학신문, 2005)

32) 그간 金德邦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으나, 『湖南節義錄』"忠武李公舜臣同殉參佐諸公 興陽(33인) 金德邦"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인일 것으로 보인다. 추측컨대,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되어 죽은 것으로 간주 되었으나, 일본에 포로로 잡혀 의학을 전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안상우, 『동아시아 傳統醫學 交流와 韓國醫學 文獻調査』(제5회 한일동양의학심포지엄, 2005)

33) 『鍼灸極秘傳』 自序 "斯一卷ハ昔慶長年間甲斐ノ國ノ良醫長田德本ト云人 (梅花無盡藏ノ作者也) 朝鮮國ノ醫官金德邦ト云人ヨリ授リシ術ナリ其後田中知新ニサツケテヨリ傳來リラ其家家ニ秘シテ傳ルニ口受ヲ以テシ或ハ其門ニ入ルトイヘ片切紙ヲ以テ授テ全備スル人稀ナリ吾京師遊學ノ頃術ヲ大坂ノ原泰庵先生ニ學ヒテ兩端ヲ叩ク其後毎毎試ニ遇ニ死ヲ活スフシハく也" 木村元貞, 『鍼灸極秘傳』 (鍼灸醫學典籍大系 第13卷, 東京, 1978)

34) 오준호, 東醫寶鑑 鍼灸法의 醫史學的 硏究, 경희대학교석사(2006), p11

35) 오준호 안상우, 傳統鍼灸技法의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 한국의사학회지 18-1, p119~120, 2005.

을 통해 당시 조선의 의사들이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침들에 太腫鍼, 中腫鍼, 小腫鍼, 三稜鍼, 大鋼鍼, 經絡鋼鍼, 小史鋼鍼, 咽喉鍼, 毫微針, 圓鍼 등이 있었음을 살펴 보았다. 의학문답에서 이들 침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太腫鍼, 中腫鍼, 小腫鍼, 大鋼鍼은 종기를 외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한 침이었으며, 三稜鍼은 찔러 放血시키기 위한 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경혈에 자침하여 시술되었던 침은, 침의 형태묘사로 보건대, 經絡鋼鍼, 小史鋼鍼, 毫微針 정도로 보인다. 침의 크기를 추측한 것과 같이 이 침들의 쓰임 또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의관들이 이렇게 다양한 침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에 다양하고 정밀한 침구 기법들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침술 도구들을 통해 조선의 침구술의 높은 수준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둘째, 당시 조선에서는 鍼術이 湯液의 사용만큼이나 중요하게 시술되었으며, 침과 약을 같이 처방 하거나, 鍼術과 用藥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선인필담의 金德倫이 조선에서는 침과 약을 함께 성행하고 있다(弊邦鍼藥並爲盛行)고 한 것은 鍼術이 用藥만큼 발전하였다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조선에서 鍼術과 藥物을 함께 중요시 했다는 뜻도 된다. 상한의담에서 오른쪽 귀가 울리고 머리가 차면서 잇몸에서 피가나는 환자(右耳鳴頭冷或齦出血)를 相火로 보고 치료한 奇斗文의 의안은 당시의 치료법의 한 예를 보여준다. 그는 補中益氣湯加減方에 雲林潤身丸을 복용하고, 아울러 風池穴에 뜸을 뜨는 복합적인 처방을 쓰고 있다. 이 의안은 用藥과 鍼灸를 함께 운용한 예로서 당시 의사들의 실제적인 치료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편, 조선 의사들이 鍼術과 用藥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은 종합의서를 통해 鍼灸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당시 조선의 침과 뜸이 鍼灸이론과 用藥이론이 함께 실려 있는 종합의서를 통해 학습되었다. 조선에서 鍼術이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中國과는 달리 침구 전문서의 간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中國에서는 鍼灸만을 전문적으로 정리한 많은 서적들[36]이 있었지만, 조선 고유의 서적은 『鍼灸經驗方』 정도였다. 당시 鍼術과 用藥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당시 의사들의 생각 때문으로 풀이 된다. 『兩東唱和後錄』에서 奇斗文은 침을 공부하는 서적으로 『醫學入門』과 『神應經』을 꼽고 있다. 그는 "補瀉虛實의 법, 『醫學入門』의 子午流注의 법, 『神應經』에서 침과 뜸을 놓았던 혈자리 들을 널리 배우면 침에 밝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비록 그가 『醫學入門』에서 子午流注만을 말하였지만, 『桑韓疑問答』에서 趙崇壽는 『醫學入門』에서 밝힌 鍼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醫學入門』이 당시 조선 鍼術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시켜 준다.

舍岩鍼法 醫案으로 유명한 芝山은 자신의 序文에서 "穴法은 『東醫寶鑑』을, 補瀉는 『醫學入門』을, 選穴處方은 『舍岩正五行』을, 察證은 『靈樞』 및 여러 方書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芝山이 奇斗文과 같이 18세기에 활동하였던 의사[37]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본다면, 침구를 학습하기 위해 『東醫寶鑑』, 『醫學入門』[38] 등 종합의서를 보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학풍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종합의서를 통해 침구를 학습하게 되면, 자연히 탕액과 침뜸을 조화롭게 사용하게 되며, 탕액을 쓰기위한 변증의 방법들이 그대로 침과 뜸에 응용되게 된다. 오장으로 병증을 나누고 五腧穴을 이용하여 침 처방을 내리는 사암침법은 침술을 이용하던 동아시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침법이다. 이 침법은 오장과 침법을 개념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조선의 침술이 종합의서를 통해 학습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당시 조선에서 鍼醫 許任의 저서인 『鍼灸經驗方』이 널리 읽혔으며, 그를 중심으로 사승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兩東唱和後錄』에서 奇斗文은 村上溪南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해 가지고 온 의서를 보여준다. 이에 村上溪南은 책에 실려 있는 別穴을 보고 필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 책은, 村上溪南이 처음 보았다는 점, 別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 井滎輸經合의 혈자리를 중요한 兪穴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許任의 『鍼灸經驗方』을 떠올리게 한다.[39] 許任은 조선중기 유명한 鍼醫로서 『鍼灸經驗方』이라는 독창적인 침구전문서를 남겼으나, 정작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그는 임진왜란 직후 활약하여 宣祖, 光海君代에 침구의가로 이름을 떨쳤고, 1644년(인조22년) 그의 나이 75세 때 『鍼灸經驗方』을 간행하였다.[40] 『鍼灸經驗方』은 일본에서도 1725년, 1778년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1725년(享保10년) 일본판을 처음 간행한 山川淳菴은 젊은 시절 조선에 유학했던 의사로서, 당시 조선 의가들이 침구를 중시하여 침구치료로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둔 것과, 鍼家들이 하나같이 다 許任 針灸方을 배워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서문에 적고 있다.[41] 또 그는 "유독 조선을 鍼刺에 있어서 최고라고 부른다. 평소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다는 말이 정말 꾸며낸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여 당시 조선의 침술 수준을 높이 평가하였다.[42] 허임 『鍼灸經驗方』이 유행한 시기와 일본에 전래된 시기로 볼 때, 1711년에 기록된 양동창화후록에서 村上溪南이 본 것은 『鍼灸經驗方』일 가능성이 높다. 許任에 대한 내용은 『桑韓疑問答』에 한차례 더 등장 한다. 趙崇壽는 "동방에 許任이 있어 (침술에) 능통하였고, 金中白이 그것을 이었는데 지금은 없으니 참으로 애석하다"라고 하였다. 許任의 사승관계에 대하여서는 1749년(영조25년)에 조정준(趙廷俊)이 저술한 『及幼方』에 崔有泰, 吳鼎和 등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상한의문답』과 『及幼方』의 내용을 연관지어 보면, 許任의 제자로 金中白이 있었으며, 崔有泰[43], 吳鼎和[44] 등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6) 徐鳳의 『鍼灸大全』(1439), 楊繼洲의 『鍼灸大成』(1603) 등이 유명하다.

37) 芝山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것의 없다. 다만, 지산의안이 사암침법 형성 이후에 성립되었을 것이며, 의안 내용 가운데 疫癘가 유행한 시기를 따져본 결과 1742년 직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달호 김중한 「사암침법의 저작시기 및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경희대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한국의학사논문집 1995) 218~224쪽

38) 『醫學入門』이 당시 조선 침구학에 끼친 영향은 저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柳成龍이 저술한 『鍼灸要訣』(1600)은 『醫學入門』의 경혈과 침구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醫學入門』의 歌括형식을 버리고 도표화 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針灸資生經』으로 보충하였다.

39) 안상우, 〔고의서산책256〕-兩東唱和後錄②, 민족의학신문, 2005〕

40) 朴文鉉 金南一,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학교박사(2002), pp2-7.

41) 朴文鉉 金南一,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학교박사(2002), pp8-9.

42) 朴文鉉 金南一,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학교박사(2002), p9

43) 1498년(연산군 4) 시행된 의과고시(醫科考試)〔무오식년시 戊午式年試〕부터 1870년(고종 9) 시행된 의과고시〔경오식년시 庚午式年試〕까지의 합격자 명단을 수록한 『醫科先生案』에 辛卯式年, 壬子式年, 己

허임의 의술은 17세기뿐만 아니라 18세기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통신사 의학문답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도를 가진 질문과 대답들이 산재해 있어 일관된 요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들 문답 속에 드러난 내용을 통해 당시 조선과 일본의 침구학의 모습과 관심사 등을 대략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의가들은 침구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었으며, 임상적으로 전문화되었다. 이들은 毫鍼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기법이 다양화 되어 이미 여러 유파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침구법이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것인지, 특히 침구 선진국으로 여겨지던 조선의 그것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알고자 하였다. 18세기 조선은 침구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외과 질환에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되었으며, 경락을 찌르는 침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도구적인 발전은 그 기술의 정밀함을 반증한다. 사료의 부족으로 당시의 침구의학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東醫寶鑑』,『醫學入門』등 종합의서가 침구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 때문에 탕액의 사용에서처럼 臟腑와 內傷을 중요시한 침구법이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도량형

조선통신사 의학문답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도량형의 기준을 묻는 내용이 등장한다. 도량형이 중요한 약을 처방할 때 기준이 되는데, 당시 동아시아 의학계는 주로 문헌을 통해 교류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는 왜관무역을 통한 조선의서의 수입, 나가사끼항을 통한 중국상선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과 조선의 의학기술을 의서를 통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의서에 기록된 치료기술의 용량을 명확히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약을 처방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였다.

표 7. 의학문답기록중 도량형에 관한 기록

문답기록번호	년도	사행	자료명	도량형 관련 질문내용
5	1719년	己亥使行	桑韓唱和塤篪集	1. 조선의 도량법/升合의 단위는 일본과 다르고 무게의 단위는 일본과 같다. 2. 일본의 한첩분량 1~2錢/조선의 분량은 大劑(1냥이상), 中劑(1냥이하),輕劑(5전이하)로 구분 3. 금박100片의 무게/모름 4. 一炷香의 시간/모름 5. 생강1片의 무게/2錢
7	1748년	戊辰使行	桑韓鏘鏗錄	1.약 한첩의 양과 무게/1兩 2. 銀을 세는 단위/100葉이 1兩, 일본의 1目은 조선의 10葉에 해당 3. 저울의 단위/分錢兩, 100目이 1兩
8	1748년	戊辰使行	班荊閒譚	일본의 약한첩분량 1~2錢 혹 4~5錢/조선의 약한첩분량7~8錢에서 1兩
9	1748년	戊辰使行	韓客治驗	1. 약한첩분량/성인1.1~1.2兩, 허약자 7~8錢 2. 물의 분량/약1냥에 물1승 5합이 될 때까지 달임.
11	1748년	戊辰使行	朝鮮人筆談	1. 1鍾의 양/5合 2. 5合의 양/1盞은 6~7兩 3. 생강1편의 무게/1.5錢~2錢
19	1764년	甲申使行	松庵筆語	白朮一兩, 半夏半合, 桂三寸 / 同身寸法

卯增廣, 乙酉式年에 합격한 사실이 보인다.

44) 1860년대 무렵 기록된『太醫院先生案・內鍼醫先生案』에 "海州吳鼎和敦卿庚辰 腫敎活別 移仕同參"라고 보인다.

도량형의 문제는 중국에서도 시대별로 다르고 의학에서는 송대 교정의서국에서 이전의 문헌을 다시 간행하고[45] 또 당시까지의 치료기술을 종합하였지만[46] 금원대 기존의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작하면서[47] 도량형에 대한 새로운 기준정립이 필요하였다. 11세기 이전까지의 의학경험을 12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재구성하면서 점차 도량형의 통일을 보게 되는데 조선에서는『東醫寶鑑』에서 그 기준을 마련한 이후 정착되었다고 보여진다. 13세기 중국의학자 李杲는 고금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전의 1分은 지금의 2.5錢이며 이전의 3兩은 지금의 1兩이라고 조정하였고[48] 16세기 초반 명대 의학자 虞摶은『醫學正傳』에서 고방의 1/10의 수준으로 약을 써야한다고 하였다.[49] 그러나 다시 17세기에 들어서면 虞摶의 방식으로 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다시 도량형의 기준을 높여『醫學正傳』에서의 한첩 기준 5錢이었던 것이 7~8錢에서 1兩까지 늘어난다.[50]『東醫寶鑑』에서는 늘어난 도량형의 기준을 표준으로 정해 조선의학의 도량형기준이 되었고, 18세기 조선통신사들은『東醫寶鑑』의 기준을 일본의학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조선통신사 의학문답에서 일본의사들의 질문도 이상의 동아시아 전반의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도 李杲와 虞摶이 저서에 기록한 내용을 예로 들면서 명확한 도량형의 기준과 조선의 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조선의 한 첩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이다. 문답기록을 통해 조선은『東醫寶鑑』에 있는 1兩 전후인데 반해 일본에서의 한 첩은 작게는 1錢 많게는 5錢정도로 훨씬 적은 양을 투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상현장경험을 통해 가장 궁금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片', '一柱香'같은 상대적인 표현들이다. 生薑이나 金箔의 단위로 쓰는 '片'은 한 조각, 한 장이라는 의미이며, 향 하나가 모두 타는 시간이라는 뜻의 '一柱香'은 조선에서는 쓰지 않고 중국에서만 쓰는 시간을 재는 기준인데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모호한 시간표현이다. 일본의사들은 중국의학이나 조선의학의 실제 임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인 표현들에 익숙하지 못해서 생강1편의 무게, 금박1편의 무게, 일주향의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 했다.

4. 의학의 계보와 의서의 연구

18세기 당시 조선의학계와 일본의학계를 살펴보면 의학연구의 경향성이 차이가 있음을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다. 통신사의 의학문답기록에서도 그 경향의 차이를 찾아볼수 있는데 1748년 兩東筆語에서 丹羽貞机는 다음과 같이 일본의학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문답1]

우리나라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자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

45) 孟雄在 等編, 강좌중국의학사, p163, 대성의학사, 서울, 2006.
46) 孟雄在 等編, 강좌중국의학사, p153, 대성의학사, 서울, 2006.
47) 孟雄在 等編, 강좌중국의학사, p193, 대성의학사, 서울, 2006.
48) 許浚,『東醫寶鑑・湯液篇』斤兩升斗 (南山堂影印本 p674)
49) 虞摶,『醫學正傳』「集例」
50) 許浚,『東醫寶鑑』「集例」 (南山堂影印本 p69)

니다. 하나는 학의라고 하고 하나는 방의하고 합니다. 학의는 《소문》·《난경》·운기학설을 주장하고 육기와 오행의 이치를 강론하여 오로지 오장육부와 배속시키며, 藥性의 쓰임은 칠방과 십제의 설을 부수적으로 삼고 치료법은 하간·결고·동원·단계를 따릅니다. 방의는 《금궤옥함》과 《상한론》을 비조로 삼고 《천금방》과 《외대비요》를 좇아서 증상에 맞는 방제를 찾아 임기응변으로 치료합니다. 《소문》, 《난경》과 운기 등의 이론을 부수적으로 삼고 중경·사막·왕도·숙미·역림을 숭상합니다. 저는 두 유파 어는 한쪽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문에는 주객과 본말의 차이가 있으니, 지금 高明으로서 판단하시다면 어느 것이 옳은 지요? 가르침을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兩東筆語』 1748년)

그리고 의학문답기록에는 조선의 의학계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1764년 李佐國은 조선에서는 『黃帝內經』을 기본으로 하면서 유장이주의 책을 읽는다고 일본의사들에게 설명한다. 조선의 의학계보에 대해서 1748년의 趙崇壽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문답2]

의서를 읽는 법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소문』과 『난경』을 읽는 것은 무리입니다. 조선에서는 매번 『입문』과 『정전』 등의 책을 연구해서 익숙해진 후에 『소문』과 『난경』으로 나아갑니다. 『정전』은 글이 분명하고 『입문』은 아취가 있고 정밀하여 같이 공부한다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재주가 없는 이가 먼저 『소문』과 『난경』을 본다면 그 심오한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의가들의 의서를 두루 읽은 다음에야 가히 깊은 이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망령되게 어려운 것부터 시작한다면 호랑이를 그리려다 도리어 개가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어찌 식견이 있겠습니까? 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공께서 따르신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조숭의 문답에 나오는 『醫學入門』과 『醫學正傳』은 당시 조선에서 의학을 연구하는 기본텍스트로 자주 활용된 의서로서 금원사대가의 학파인 유완소, 장종정, 이고, 주진형의 학설을 융합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국 명대의 종합의서들이다. 특히 『醫學入門』은 16세기 말엽에 저술된 의서로서 명대의학의 정수를 담고 있다. 조선의 의학계가 금원시대 의학사상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계보로 정착되어 가는 형태라면 일본에서는 조선과 유사한 형태로 금원시대의 의학사상을 정리해가는 李朱學派와 『傷寒論』을 중심으로 漢唐의 의서를 중심으로 연구해가는 학파로 양분되는 형태이다. 동아시아의학사에서 『傷寒論』이 갖는 위상은 지대했지만, 명대의 주류의학계는 금원시대 의학자들의 여과과정을 통해 약간 변형된 형태의 『傷寒論』 연구를 지향하고 있었다. 따라서 명대 丹溪學派가 주도한 의학체계를 수용한 조선의학계로서는 『傷寒論』 원래의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가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의학의 연구에 대한 기록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해부학의 등장이다. 1764년 『雞壇嚶鳴』에는 일본에 사체를 해부하여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온다. 『雞壇嚶鳴』 나오는 『藏志』에 관해서는 富士川游의 『日本醫學史』에서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1754년(日本 寶歷4年) 2월 7일에 산협동양이 侍醫 소산현적 등과 함께 사형수의 시신을 해부하여 보았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1759년에 간행되었다고 설명하면서 『藏志』에 나와있는 도해그림을 수록하였다.[51] 동아시아에서 해부학은 1~2세기경 『內經』과 『難經』에 기재된 이래 큰 변화없이 이어져 내려왔다. 당시는 해부학이라는 용어보다는 '臟腑', '藏象'이라는 용어로 주로 묘사하고 있으며, 장부의 정확한 실제형태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후 『內經』과 『難經』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이 첨가되기는 하였지만 큰 흐름상의 변화는 없고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가지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재구성, 내지는 재표현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송대에는 실제 해부를 거쳐 완성한 「歐希範五臟圖」가 있었다. 일명 「存眞圖」라고 하는 이 그림은 없어졌지만, 元代 孫煥이 지은 「重刊玄門脈訣內照圖」에 「存眞圖」의 내용이 계승되어 왔고 그것을 토대로 『針灸聚英』『醫學入門』『萬病回春』『鍼灸大成』『三才圖會』『類經圖翼』『萬壽丹書』『醫宗金鑑』에 '內景圖' 혹은 '臟腑圖'가 만들어졌다. 이 때의 장부도는 기능적인 요소가 가미된 형태로 정확한 실측형태를 그려 넣은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19세기 초 淸代의 의가인 王淸任(1768~1831, 字 勛臣)이 1830년에 『醫林改錯』을 저술함으로써 전통적인 장부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臟腑觀을 제시하였다.[52] 王淸任의 이러한 혁신적인 주장은 당시 점차 강해지고 있었던 서양문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의학 분야에서도 이미 1621년에 스위스 선교사인 Joannes Terrenz(1576~1630)은 서양의 의서를 한역한 『泰西人身概說』『人身圖說』을 출간했기 때문이다.[53] 일본에서의 『藏志』와 같은 새로운 장부관의 출현한 것은 중국의 영향이 아닌 독자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일찍부터 서양의 문물과 함께 의학을 수용한데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조선의 의학계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黃帝內經』의 뜻에서 어긋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臟腑觀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5. 18세기 朝鮮通信使 醫學問答의 醫學史的 價値

한국한의학은 중국으로부터 고급의학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또 국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중국의학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 조선시대의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특히 『東醫寶鑑』의 출간을 계기로 한국의 한의학은 중국의학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조선통신사 의학문답기록은 그 연구자들의 주장을 방증하는 것이며, 그들이 미처 언급하지 못한 일본으로까지 조선의학이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통신사의 방일때 전 일본국민들의 열렬한 반응은 의학분야에도 그대로 미쳐, 조선통신사 의관들의 모든 말과 행적을 그대로 필사하여 출간할 정도로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1764년의 문답기록자료 『和韓醫話』에 나오는 다음 기록은 조선의학이 일본의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주고 있다.

51) 富士川游著 朴炅等譯, 日本醫學史, pp447~450, 法仁文化社, 서울, 2006.
52) 孟雄在 等編, 강좌중국의학사, p314, 대성의학사, 서울, 2006.
53) 孟雄在 等編, 강좌중국의학사, p278, 대성의학사, 서울, 2006.

정덕년간에 조선의 기두문선생이 통신사를 따라 와서 일본의 의사들과 의학문답을 나누었는데 의론과 의술이 분명하고 정확하여 가히 양공이라고 할만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가까운 지방의사가 노채와 전시의 치료처방을 물었는데 기두문께서 답하시길 그 증상은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데 이 증상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조선에 이런 증상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체질이 건장하여 그런것인지 기운의 풍토가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증상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기두문공을 힐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고 또 죽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서 수년동안 연구하였지만 치료한 경우는 열에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이에 고매하신 견해를 말씀해주신다면 그런 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和韓醫話』 1764년)

기두문은 1711년 辛卯通信使를 따라 일본에 온 조선의 의관대표이다. 당시 北尾春圃와 필담을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다.

北尾春圃 : 勞瘵傳尸라는 것이 귀국 조선에도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합니까?(『桑韓醫談』)

奇斗文 : 이 증상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의 처방서에 약간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귀국의 치법에 가감해서 써보기길 바랍니다.(『桑韓醫談』)

이상과 같이 간단한 문답이지만 50여년이 지난뒤에도 일본의 학자들은 그의 한마디를 깊게 새기고 있었으며, 자신의 임상경험의 하나의 준거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외에도 1711년 조선의학자 기두문의 영향은 의학문답기록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단 기두문의 예만 아니라 조선에서 온 모든 의학자들을 이처럼 우대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식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통신사 의관들과 필담하려 하였으며, 그 필담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책으로 펴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문답기록이 22건이지만, 현재 발굴되지 못한 자료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미쳐 출간되지 못한 문답기록까지 계상하면 당시 조선통신사 의관들이 일본의학자들과 교류한 규모와 내용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임진왜란 이후 12차례의 통신사의 활동 중에 많은 의학교류가 있었지만, 일본의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40여종의 조선통신사 문답기록을 제외하고,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조선 측의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당시 통신사는 귀국한 뒤 보고서 형식의 문집을 남기기는 하였지만, 같이 수행한 의사들의 기록은 현재 확인할 수 없으며, 기록을 남겼는지 조차도 분명하지 않다. 현존하는 자료는 모두가 일본의사가 정리한 문답기록일 뿐이며,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당시 조선의학계가 일본의학계에 미친 영향, 혹은 조선과 일본이 상호 교류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고찰한 조선통신사 의학문답기록은 실제 대화내용을 생생하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의학사연구사료, 즉 醫書와는 색다른 의학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비록 그 기록이 일본의사들의 입장에서 정리되었기 때문에, 다소 편협한 시각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기록만으로도 기존의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다수 발굴되었으며, 조선의 의학이 일본의학계에 적지않는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본고는 2003년 40여종의 조선통신사 의학문답기록이 학계에 공개된 이후, 2004년 2005년 해제작업에 이은, 본격적인 의학문답기록의 분석결과이다. 필자는 본고의 고찰을 통해 당시 조선의학과 일본의학은 통신사를 수행한 조선의사를 통해 일본의학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고, 조선의학계도 일본의학과의 교류를 통해 일면 견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고의 고찰을 통해 기존의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조선후기의학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도 다수 발굴하게 되어, 관련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사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본고에서 고찰한 조선의학과 일본의학의 관계는 기존의 통신사관련 연구자들이 공통되게 주장하는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는 큰 전제가 의학분야에서도 전연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본고에서는 18세기 통신사행중에 일어난 조선의학과 일본의학의 교류에 관하여 기본적인 흐름과 주요주제에 관해서 다량의 자료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흐름에 치중하여 고찰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문답기록의 특색을 면밀하게 살리지는 못하였다. 이 부분은 추후 개별 문답자료의 면밀한 연구를 통해 더욱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03-E00303).

참고문헌

1. 金景淑. 18世紀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文學世界. 溫知論叢 제1집, 1995.
2. 金南一. 우리나라 전통의학기술의 중국의학수입후 토착화에 대한연구. 韓國醫史學會誌 16(1):17-38, 2003.
3. 김달호, 김중한. 사암침법의 저작시기 및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
4. 金靜日. 1636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馬島 認識. 淑明韓國史論 創刊號, 1993.
5. 朴文鉉, 金南一.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대학교박사, 2002.
6. 朴贊國. 東醫學의 성립에 대한 연구. 大韓原典醫史學會誌 5: 137-150, 1991.
7.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韓國學論集 v2, 1982.
8. 안상우. 동아시아 傳統醫學 交流와 韓國醫學 文獻調査』. 5회 한일동양의학심포지엄, 2005.
9. 安珍均. 인삼재배지역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지역환경, 1982.

10. 梁永宣. 藏于日本的朝日醫家筆談. 동아시아전통의학권소재한국본의학문헌조사보고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11, 오준호. 東醫寶鑑 鍼灸法의 醫史學的 硏究, 경희대학교석사, 2006.
12. 오준호, 안상우. 傳統鍼灸技法의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 한국의사학회지 18권 1호, 2005.
13. 李成厚. 辛卯通信使 硏究. 金烏工科大學교論文集 V16, 1995.
14. 李政桓. 丁彰炫. 藥徵을 통해 본 吉益東洞의 의학사상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 2006.
15. 李向高. 我國人蔘栽培. 加工的歷史概況, 中藥材科技, 1984.
16. 林仲凡. 有關人蔘的歷史考證. 中國農事, 1985.
17. 張舜順. 通信使 硏究의 現況과 課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V2, 2005.
18. 張野仁.「近代日本鍼灸流派の系統圖」について, 經絡治療學會 149號, 2002.
19. 장철수. 朝鮮通信使를 포함한 韓日관계에서의 飮食文化 교류.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5권 5호, 1998.
20. 鄭章植. 1711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應. 일어일문학연구 V40, 2002.
21. 鄭章植. 壬戌使行과 朝日關係. 日本學報第47輯, 2001.
22. 車雄碩. 中國의 醫學入門이 韓國의 東醫寶鑑에 미친 影響. 韓國醫史學會誌 13(1):114-115, 2000.
23. 車雄碩, 金南一. 李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硏究. 한국의사학회지 14권 2호, 2001.
24. 車雄碩 外. 桑韓醫談과 한일의학문화교류. 한국의사학회지 17권 2호, 2004.
25. 車雄碩 外. 1711년 兩東唱和後錄과 한일의학문화교류.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권 2호, 2005.
26. 나카오 히로시著, 유종현譯. 조선통신사이야기. 서울, 한울출판사, p 208, 2005.
27. 潘桂娟, 樊正倫. 日本韓方醫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pp 33-60, 1994.
28. 富士川游著 朴炅等譯. 日本醫學史. 서울, 法仁文化社, p 238, 2006.
29. 孟雄在 等編. 강좌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p 197, 2006.
30. 이성우. 韓國食經大典. 서울, 향문사. pp 605-607, 1998.
31. 서울대학교규장각, 『倭人求請謄錄』「倭人求請謄錄解題」
32. 東槎日記. 民族文化推進會, 海行摠裁X 東槎日記. 서울, 探究堂, 1977.
33. 海遊錄民族文化推進會. 海行摠裁 I II 海遊錄. 서울, 探究堂, 1974.
34. 奉使日本時聞見錄(民族文化推進會, 海行摠裁X 奉使日本時聞見錄, 서울, 探究堂, 1977.
35. 海槎日記, 民族文化推進會, 海行摠裁 海遊錄Ⅶ 海槎日記. 서울, 探究堂, 1975.
36. 許浚. 東醫寶鑑・雜病篇 癰疽 流走骨疽, 南山堂影印本, p 549.
37. 陶弘景. 『本草經集注』. 人民衛生出版社發行 尙志鈞等輯校本, pp 207-208, 1994.
38. 李時珍. 『本草綱目』「草部卷十二」. 中國中醫藥出版社編 明淸名醫全書大成本, p 424, 2003.
39. 木村元貞.『鍼灸極秘傳』鍼灸醫學典籍大系 第13卷, 東京, 1978.
40. 虞摶.『醫學正傳』「集例」, 人民衛生出版社 交點本.
41. 조선왕조실록검색(http://sillok.history.go.kr)
42. 한의학지식정보자원검색(http://jisik.kiom.re.kr)
43. 안상우. 고의서산책255]-兩東唱和後錄①, 민족의학신문, 2005.
44. 안상우. 고의서산책256]-兩東唱和後錄②, 민족의학신문, 2005.